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대책보완이 시급하다”

1. 최근 발생국의 교훈

외국의 양돈전문잡지(National Hog Farmer)에 보도된 네덜란드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에 관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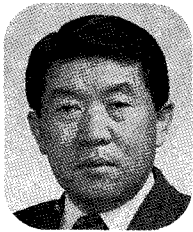
1997년 2월 세계적인 양돈국가 네덜란드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것은 한 양돈장에서 비육돈의 10%가 폐사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도축장에 파견된 정부의 수의사가 돼지콜레라 증상을 발견하였다. 돼지콜레라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사는 곧바로 도축장을 폐쇄하였으며 콜레라를 확인하는 순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네덜란드는 그 시기부터 돼지콜레라의 파괴력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 양돈장들은 이동정지 명령을 예상하고 야간에 트럭으로 돼지를 이동시켰으며 그 결과 돼지콜레라는 남부 전역에 확산되었다.

미국·캐나다등 많은 나라에서 네덜란드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시 어떤 일을 하였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였는지 세계 각국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2000년 8월 영국에서도 14년만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EU 집행위에서는 영국산 돼지 및 돼지고기의 전면 수출금지를 취하므로써 양돈농가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EU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9년동안 1,445건의 돼지콜레라가 발



한 백 용

(본회 부회장/2000GGP 대표)

생되었으며 이는 벨지움 176건, 독일 474건, 스페인 99건, 프랑스 7건, 이탈리아 248건, 네덜란드 436건, 오스트리아 10건으로써 1,200만두의 돼지가 도살처분되어 양돈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경과가 진행된 증상에 서 나타나는 허리와 체표의 자반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전형적 발증군, 하리에 의한 둔부의 오염, 후구창랑, 후구마비 등

2. 청정국으로 가는 길

미국은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하여 이미 40년전인 1951년 민간주도의 돼지콜레라 박멸위원회를 설립하였다. 1961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한 돼지콜레라 박멸법이 제정되어 총 1억4천2백만불(1,780억원)이 투입되어 박멸사업 추진 28년만인 1978년에 근절을 선포하였다. 만약 미국에 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640억불(80조원)의 산업피해를 추정(1995년 아이오와주립대 발표)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성(USDA)는 돈육 가공산업에 124억불(15조5천억원)의 현금 손실을 볼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합산할 경우 총 764억불(95조5천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

일본은 12,500호의 농가에서 987만두의 돼지를 사육하여 우리 나라보다 약 200만두 더 기르고 있다. 1993년이래 단 한 건의 발생 보고가 없는 가운데 현(縣)별로 단계적인 백신중단을 실시하던 중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중단을 시행하고 있다.

백신중단을 위한 3단계의 방역조치, 정부와 민간조직의 치밀한 청정화 추진방안, 발생시의 대응방안, 재발생시 피해농가를 위한 지원방안



▲<돼지콜레라 임상증상> 비장의 출혈성 경색

등은 우리 나라의 청정화 계획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책임자와 담당자의 사전 지정과 중앙과 현, 지방본부에 업무분담을 위한 연락조정반, 발생지역반, 주변지역반, 정보반, 현지조사반, 방역지도반, 총무반, 재반, 서무반(경리, 출납)을 편성하여 일사불란한 방역 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상태를 갖춘 것은 일본 특유의 빈틈없는 치밀한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돼지콜레라 방역 40년의 교훈

우리 나라는 40년전인 1961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제정한 후 제1종 전염병인 돼지콜레라의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양돈업의 영세한 생산구조상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농가의 수준에도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

문제가 있겠지만, 40여년간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만 거듭한 것은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한채 이를 시행한 정부당국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형적인 관료행정의 산물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돼지콜레라 방역에 실패만을 거듭하면서도 양돈업은 산업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은 계속되어 수출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에 돈육의 위생수준 향상과 국제시장개방에 따른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하여 1999년 8월 돼지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한 양돈관련산업계 중심의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가 설립되면서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추진의 가시적인 성과와 양돈농가의 이해가 확산되었다. (사)한국양돈연구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양돈농가의 97.6%가 콜레라 예방접종의 필요성과 백신을 계속할 경우 수출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수출이 중단될 경우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인 90.1%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주도의 박멸대책본부가 출범한지 1년 남짓한 홍보 활동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실증이다

4. 2001년 3월 1일부터 예방접종 중단

당초 대책본부의 3단계 박멸계획 추진일정에 의하면, 2000년 9월 1일부터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중단하여 2001년 3월 1일 우리나라의 돼지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 3월 구제역의 발생으로 이에 대한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바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돼지콜레라 백신중단 시점을 조정하여 2001년 3월 1일로 조정하였다. 그

러나 양돈 선진국들이 10년, 20년에 걸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해온 돼지콜레라 근절 성과를 우리 나라는 정부 주도의 콜레라 방역사업 40여년간 실패만 거듭해오다 이제 민간 박멸대책본부 설립 2년만에 이루려는 조급함에 대하여 양돈업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 문제점

1) 돼지콜레라 박멸에 대한 양돈농가의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단기간내의 청정화 계획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 예방접종 중단시 항체가 소멸된 무방비 상태에서의 돼지콜레라 발생은 양돈농가의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전개되며 재발시는 단시일내에 질병이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중단 이후 콜레라 재발생시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이 불투명하여 예방접종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5. 양돈업계가 요구하는 보완대책

이미 정부당국에서는 1999년 7월 1일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농림부고시 제1999-34호) 및 예방접종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9-33호)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단계별 세부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보다, 확실한 업무분담과 책임의 한계, 재발시의 보상, 예산의 확보 등 미흡한 점에 대한 업계의 납득할 만한 보완대책들이 요구되고 있다.

가. 발생농장 및 인접지역의 관리

- 1) 발생농장별 집중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해당농장의 일보를 관장토록 하고, 종료시까지 검사, 살처분, 매몰 등을 관장토록 조치
- 2) 현행 반경 50m 이내의 살처분 계획은 질병의 특성상 인근지역으로의 질병 확산을 막기 어려우므로 살처분지역을 500m로 확대조치
- 3) 살처분에 따른 매몰장소의 사전 확보와 인력, 장비동원의 세부계획 수립
- 4) 살처분 및 도태, 이동제한 보상, 재입식자금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와 확보예산의 공개
- 5) 발생지역내에 종합상황실 설치, 차량통제용 임시초소 설치, 지역별 관리책임자 및 방역요원 배치 등 세부계획 수립
- 6) 오염지역내의 전농가 임상감사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단체의 동원계획 수립 및 자연교배 금지에 따른 청정지역의 인공수정용 정액 공급 방안 수립

나. 발생농장의 살처분 보상 및 지원대책

- 1) 예방접종 중단 조치 이후 콜레라 재발생시 발생농장 돼지 전두수를 살처분함으로써 해당농장의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 피해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우며 재기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을 경우 농가파산 등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며, 모든 100두 규모 양돈농가

의 경제적 피해규모는 331,670천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표1>

- 2) 발생농장의 금융지원 방안
 - ㉠ 각종 정책자금 및 농축협 상호금융 대출금 상환연기 ... 3년
 - ㉡ 정책자금 및 농축협 대출금의 이자 납부연기 ... 3년
 - ㉢ 돼지 재입식 정책자금 지원 ... 모든 두당 100만원
 - ㉣ 지원자금 대출에 따른 농어민신용보증 특별조치

다. 오염·경제지역의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대책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피해는 실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는 구제역 발생

<표1> 모든 100두 규모 피해 발생내역

(단위:천원)

구 분	손실금액	산 출 근 거
전두수 살처분 손실	150,070	생산비 개념평가 참조
일정기간 수입감소	115,200	모든 100두×PSY 20두×96%(육성률) = 1,920두(연간 출하두수)×30,000원(두당 소득)×2년 = 115,200천원
시설 감가상각비	66,400	건물시설 332,000천원÷10년×2년
계	331,670	살처분 보상금은 제외

* 살처분 보상금: 시가 기준 80%적용시 101,000천원 지원받을 경우 실제 피해금액은 230,670천원이 발생됨.

<표2> 재입식 자금의 산출내역 및 지원 요구 금액(모든 100두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소요자금	자금조달금액		소요기간 (년)	비 고
		지원금	자담금		
일관경영 농장	230,230	115,115	115,115	2	모든 1두당 230만원 소요
자돈생산 농장	115,080	57,540	57,540	1.5	모든 1두당 115만원 소요
비육돈 전문농장	37,375	37,375	37,375	1	비육돈 1두당 14만9천원 소요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

〈표3〉 양돈농가 경영형태별 재입식 자금 소요내역

(단위:천원)

항 목		일관 경영 (모돈100두)	번식돈 경영(모돈100두)	비육돈 전문농장 (500두)
가축비	종돈구입비	38,400	38,400	-
	자돈구입비	-	-	27,500
사료비	종돈용	48,600	35,100	-
	비육돈	89,230	-	37,500
	자돈용	-	5,880	-
	계	137,830	40,990	37,500
운 영 비		31,000	20,000	7,500
약 품 비		18,000	11,700	1,250
시설 보수비		5,000	4,000	1,000
계 (두당 비용)		230,230 (2,302)	115,080 (1,151)	74,750 (149)

주: ○투자비용 산출기간: 재입식~비육돈 출하판매까지임.
○운영비는 분뇨처리비,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됨.

〈표4〉 모돈 100두 규모 피해발생 내역

구 분	오 염 지 역	경 계 지 역
자돈도태	250두×55천원 = 13,750천원	100두×55천원 = 5,500천원
등급하향	75두×3등급×9천원 = 2,025천원	90두×1등급×9천원 = 810천원
	75두×2등급×9천원 = 1,350천원	
	75두×1등급×9천원 = 675천원	
도태모돈 출하지연	5두×31kg×40일×250원 = 150천원	
계	17,950천원	6,310천원

〈표5〉 현행 살처분 지급 요율(제3조 1항)

당일신고	4일 이내 신고	5일 이후 신고	검역과 확인	비 고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시가기준	평가반 5명이 개별평가하여 평균금액 산출
100%	80%	60%	40%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지원요령(2000.11.11 농리부장관고시)

시의 체험을 통하여 실감하였으며 실제 당하지 않은 자는 그 심각성을 같이 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의 40일간 이동 제한 조치로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중 하나는

돼지 출하 중단에 따른 축사 부족 사태의 발생이다. 주간 단위로 분만과 이유 출하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생산 시스템은 생산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한 생산관리 체계이므로, 기간내 생산되는 자돈 전두수를 도태처분해야 하고, 출하규격을 넘긴 비육돈의 출하등급 하향에 따른 손실 발생, 밀사된 돈사에서 질병 발생 위험 등 경영손실과 정신적 고통은 발생농장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라. 돼지 살처분 보상제도의 현실화

돼지콜레라 발생시 현재 농가의 수준으로 발생 당일 정확한 판단하에 콜레라 발생 신고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기준 100%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발생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현행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농림부고시 제2000-71호 2000.11.11)은

다음과 같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 1) 농가의 수준에서 돼지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관련기관에 신고 및 공수의 또는 방역요원, 검역관 확인으로 시가기준 100%의 살처분보상

〈표6〉 살처분 보상금의 조정(안)

현행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개선안		비고
구 분	상한가격	구 분	상한가격	
자돈(30kg이하)	축협조사월보 기준 " " 250,000	자돈 20kg이하	시가기준	F ₁ 후보돈 1차산 분만모돈 2년령
육성돈(31~60kg),		육성, 비육돈	"	
성돈		31~120kg	"	
오제스키병 양성 모돈		후보모돈	350,000	
		종 빈 돈	600,000(산차별 조정)	
		종 모 돈	600,000(연령별 조정)	

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현행 살처분 보상의 신고 및 확인, 평가, 지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예방접종을 중단하므로 돼지가 콜레라에 대한 항체가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콜레라 발생시 피해규모가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

으므로 보상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공개하 므로서 불안한 양돈농가들이 안심하고 국가의 방역계획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마. 돼지질병 청정화 자조기금 조성 및 보상

30년 이상 실시해 온 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에 따른 양돈농가의 두려움과 인접 대만의 구제역 발생, 콜레라 청정국인 네덜란드, 영국 등의 최근 콜레라 재발생과 1,200만두 이상의 도축처분등에 대한 양돈농가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구제역, 콜레라 발생시 전두수를 살처분당한 농가의 재기 자금의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성격의 자조적 기금 조성사업을 시행하므로써 국가의 돼지질병 청정화 계획에 양돈농가들이 안심하고 따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어야

〈표7〉 기금적립 및 보상금 지원 기준(안)

구 분	기금적립		보상(안)	
	농가적립	정부지원	전두수 살처분시	오염지역 포함시
모 돈	2,000	2,000	400,000	-
후 보 돈	1,500	1,500	300,000	-
비육돈(4개월령 이상)	500	500	100,000	20,000
육성돈(2개월령 이상)	350	350	70,000	15,000
자 돈(2개월령 미만)	200	200	40,000	10,000

* 가입기간: 1년 단위

한다.

1) 기금의 조성

㉠ 자조기금 조성취지에 찬동하는 양돈농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고 사육규모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기금에 납부토록 한다.

㉡ 양돈농가들이 일정액의 자조기금을 적립한 후 구제역, 콜레라 발생농장에 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부족액은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살처분, 도태보상 제외)

㉢ 기금적립 및 보상금 지원 기준(안)(표7)

㉣ 모돈 100두 규모의 연간 적립금액 및 보상금 지원(예)(표8)

필자는 GGP중돈장을 운영하므로 비교적 고가의 순종모돈을 보유하고 있다. 구제역은 물론 콜레라, 오제스키 등 발생시 중돈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은 없는가?

〈표8〉 모든 100두 규모의 연간 적립금액 및 보상금 지원(예)

구 분	두 수	기금적립 및 보상지원금					
		농장적립금		살처분보상금		오염지역 포함시	
		두당 (원)	적립금 (천원)	두당 (천원)	보상금 (천원)	단가 (천원)	보상금액 (천원)
모 돈	100	2,000	200	400	42,000	-	-
후보돈	10	1,500	150	300	300	-	-
비육돈	342	500	171	200	34,200	20	6,840
육성돈	352	350	123.2	140	26,440	15	5,280
자 돈	385	200	77	80	15,400	10	3,850
계	1,189	606	721.2	-	121,040	-	15,970

장 폐쇄조치로 입게 될 막대한 손실의 방지를 위하여 동물질병 보험에 가입하여 매년 8,900천원의 소멸성 보험료를 지불하고 제 1,2종 법정 전염병을 비롯한 돼지의 집단폐사가 우려되는 35종의 각종 질병(PRRS, 돈단독, 마이코플라즈마, 헤모필러스페럼, 흉막폐렴, 파스투렐라, 살모넬라, 돈적리 등)에 대한 보상을 보장받고 있는 바 (표9)는 그 가입내역이다.

영리의 상업보험, 그것도 국내 손해 보험사에 가입하고, 영국의 로이드 보험에 재보험을 하는 조건으로 총평가액의 2%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중돈의 경우 용돈은 두당 100만원, 모돈은 70만원, 자돈은 15만원의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구제역, 돈콜레라, 오제스키에 한정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면 제시된 적립금이 과다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당한 선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

일본의 경우 가축방역 호조기금(互助基金)은 양돈농가들이 자의에 의해서 계약 돼지

두 수를 명시한 계약서에 의하여 호조기금을 전국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회에 납부되고 동협회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계약과 수납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을 (사)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관리 운용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케 함으로서 양돈 농가들이 농장 파산의 위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조적 기금조성 사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6. 양돈업계의 각오 결의

최근 정부당국은 양돈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양돈생산구조를 내수산업구조로 개편하고 사육규모를 750~800만두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동안 수출산업으로 지원 육성한 양돈산업의 생산기반, 이것이 구제역 발생으로 2년 이상 수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 수급불균형과 이로 인한 양돈경기의 장기간 불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감

◀예방접종 중단 조치 이후 콜레라 재발생시 발생농장 및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표9> THE PERIOD OF INSURANCE

NAME	BREED	SEX	EAR NUMBER	USE	LIMIT OF UNDERWRITER'S LIABILITY
BOARS	-	M	10 Heads	Breeding Pigs	₩10,000,000.-
SOWS	-	F	300 Heads		₩210,000,000.-
YOUNGSTERS	-	M, F	1,500 Heads		₩225,000,000.-
THE TOTAL LIMIT OF UNDERWRITERS' LIABILITY					₩445,000,000.-
THE PREMIUM(RATE)					₩8,900,000.- (2.00%)

TERMS ○ LLOYD'S LIVESTOCK INSURANCE POLICY FORM (L NMA2070)

& CONDITIONS ○ SUBJECT TO ₩40,000,000. - EXCESS EACH AND EVERY LOSS

○ CLAIMS COOPERATION CLAUSE

* LIST OF DISEASES TO BE COVERED IS ATTACHED

안되어 정부 당국은 양돈업을 내수산업으로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 정책 변경 의지로 표명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그동안 이룩한 수출산업으로서의 생산기반과 국제경쟁력의 확보 및 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 의욕은 당연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양돈산업이 다시 수출산업으로 발전기반을 더욱 다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양돈산업의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양돈업계는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품질과 위생수준을 강화하여 국산 돈육의 수준을 수입돈육과 비교우위에 둘 수 있는 생산기반을 다져야 한다. 돈육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고, 위축된 소비를 부추기고, 정부가 더욱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가지게



▲양돈농가들이 파산의 위험으로 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자조적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일 등이 산업의 주인공인 우리 양돈인들이 공동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이 모든 기반들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것이 구제역, 콜레라 등 방역문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 양돈업계가 앞장서고 정부 당국과 민간 관련업체와 단체에서 솔선수범하는 길만이 나와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을 살리는 길이다.

2001년 3월 1일 30년 이상 실시해 온 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목전에 두고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정부에서도 모든 양돈농민들이 안심하고 방역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양돈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방역정책, 정부만을 믿고 따르는 농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

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의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방역프로그램, 양돈업계와 합의되고 공감의 형성된 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시책을 바라고 있다. 전채산과 많은 부채를 투입한 양돈장은 장치산업구조, 이 장치산업에 전 두수의 돼지가 콜레라로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겠는가. **양돈**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이 없는가?